
브라질에 신중단계급 등장?: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논쟁적 접근

셀리 스칼론, 안드레 살라타

셀리 스칼론은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UFRJ) 교수이며, 안드레 살라타는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 철학·사회과학연구소 사회학·인류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1. 들어가며

브라질에서 중단계급을 논하기에 지금보다 적절한 시기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없었다. 현재 이 주제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열기를 띠어가고 있으며, 이제 학문의 경계를 넘어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 대중적인 공론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다. 전반적으로 브라질 중단계급의 성장, 나아가 새로운 중단계급의 등장을 옹호하는 입장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해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얼마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사회계급만 접근 가능하던 시장에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신흥 계급에 속하는 가구의 등장을 다루는 보도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는 브라질이 이제 인구의 다수가 중단계급 가구로 구성된 국가로 변모했다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계급을 오로지 소득과 소비 시장 접근성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일부 학자들의 최근 연구물은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Torres 2004; Neri 2008; Souza and Lamounier 2010; Oliveira 2010).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은 소득 불평등의 감소와 소득 이전 프로그램, 그리고 최근 몇십 년간 이룩한 경제 안정화와 신용도 회복에 힘입어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률을 보여 주었고, 이는 많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소비 패턴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Barros et al. 2010). 이처럼 경제적으로 낙관적인 상황에 근거한 네리의 연구는 저소득 그룹의 감소와 그에 상응하는 중간 그룹, 이른바 '신중단계급'의 성장을 보여주었다(Neri 2008).

그러나 이 문제에서 소득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소득 자체가 중단계급의 증가 혹은 감소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기준은 아닐 것이다. 소득과 소비의 증가가 반드시 계급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 기회의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이와 유사한 논리 및 주장을 근거로 일부 사회학자는 이미 브라질의 신중단계급이라는 명제와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Souza 2010; Sobrinho 2011).

이 글에서는 소득 분배와 발생 가능한 계급 구조 변동의 관계를 한층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접근하고 분석함으로써 위의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2. 신중단계급이라는 명제

브라질 사회에 소득 분배와 관련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Barros et al. 2010). 2001년 이래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지니계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최근 30년 동안은 브라질 역사상 최고 낮은 지

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빈곤층의 소득이 현저히 증가해왔고, 빈곤과 기근 지수 또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 분배의 관점에서건 빈곤 감소의 관점에서건, 또는 고용 증가와 노동시장의 정규성의 관점에서건 지난 10년 상당수 브라질 인구는 의미 있는 삶의 수준 향상을 누렸다. 이미 앞에서 다룬 것처럼 일부 학자는 일련의 자료를 토대로 브라질에서 삶의 수준이 개선된 결과 중간계급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브라질에서 중간계급 성장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네리의 연구는(Neri 2008) 이른바 ‘브라질 척도’(브라질 소득계급 구분)¹⁾ 바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브라질을 4개의 계급(AB, C, D, E)로 나눈다. 계급 간의 경계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의해 정해지며, 중간값, 십분위율, 혹은 빈곤선과 같은 몇몇 척도를 참고한다. 이렇게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의 연구는 C계급(소득 분포에서 중간값과 9분위의 중간에 자리 잡은 계급) 또는 극빈층에서 ‘탈출한 사람들’과 엘리트 사이에 분포한 소득 그룹에 대한 자료를 중간계급 성장의 증거로 삼는다. 최하위 50%와 최상위 10% 사이에 분포하는 C계급은 브라질 사회의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네리는 이 계급을 “브라질 사회의 이미지에 가장 근접한 [...] 통계적 의미의 중간계급”으로 정의한다(Neri 2008, 15).

그러나 소브리뉴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Sobrinho 2011) 네리의 주장은, 특히 중간계급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만일 중간계급에 대한 정의가 소득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면, 이러한 접근법에는 구매력, 직장

1) ‘브라질 척도’란 브라질 경제 분류 척도를 뜻하는 CCEB(Critério de Classificação Econômica Brasil)의 약칭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인구의 경제력에 따른 계층 구분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매우 위계적인 전통적 ‘사회계급’ 체계로 인구 분류를 시도하지 않으며, 기존의 방법처럼 소득을 묻는 대신 일련의 소비재의 소유 여부, 가구의 학력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계층을 분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 옮긴이.

내의 지위, 교육 투자, 건강 보험, 노동수첩(carreira de trabalho)²⁾ 같은 요소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리가 제시한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최근 몇 년간 브라질에서 중간 소득 그룹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뿐이다. 이것을 근거로 중간계급의 성장을 논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중간계급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사회학적 연구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3. 중간계급(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 모색

중간계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학적 논의는 비록 최근의 일 이기는 하나 그 성격이 복잡하다. 마르크스의 저술에서 우리는 프티부르주아, 임금노동자, 관리자, 기술자 등으로 이루어진 중간계급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Burris 1986). 한편 막스 베버는 거의 모든 저술에서 20세기 초·중반에 신중간계급 성장의 지배적 원인이 된 관료제 형성을 통해 나타난 비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지배에 의한 권위 체계의 발전에 주목했다.

밀스는 이 과정에 대한 뛰어난 묘사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 신중간계급 형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한 바 있다(Mills 1951). 베버의 영향하에 밀스는 20세기 초·중반에 미국에서 구중간계급(소지주)의 감소와 이에 부응하는 신중간계급(화이트칼라 노동자: 경영직, 관리직, 감독, 기술직, 사무직, 판매직 등)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분석했다.

2) 브라질에서 모든 피고용인이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할 서류로, 노동수첩에는 노동법에서 지정하는 모든 고용 관계를 기입해야 한다. 고용주는 새로 직원을 채용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노동수첩에 서명을 해주고 노동청에 등록해야 한다. 1932년 입안되고 1934년 제툴리우 바르가스가 노동자들의 권의 공고화를 위해 이를 의무화하였다 — 옮긴이.

소위 신중간계급을 다룰 때의 최대 난점, 주로 마르크스적 관점에 내재된 난점 중의 하나는 마르크스가 정의하는 중간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주가 아니면서도 자기 사업을 운영하거나 비육체노동을 하거나 직원을 감독하거나 비(非)지주와 구분되는 지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베버 이론은 재산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계급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일하지 않은 복수로서 중간계급을 이해하는 데 훨씬 적합한 듯 보인다.

어찌 됐든 지금까지 이 두 흐름은 현대 사회의 계급 정의에서, 더욱 세부적으로는 중간계급(들) 정의에서 주요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는 복수의 중간계급을 명명하고 논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 — 서비스 계급(service class)(Goldthorpe 2000)³⁾, 화이트칼라(Mills 1951), 관리자 계급(Ehrenreich 1978), 모순적 계급 위치(Wright 1976) — 가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사회 계급화에 관한 현대의 중요한 학자들 중에서 존 골드소프(John Goldthorpe)와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를 다룰 것이다.

베버 이론의 핵심과 가장 가까워 신베버주의 이론가로 분류되는 영국의 존 골드소프는 중간계급(들)을 지칭하기 위해 서비스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서비스 계급은 노동 기반이 다른 정규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동자 계급과 구분된다. 서비스 계급이 가진 인적 자산의 구체성과 노동의 형태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고용과 급여는 훨씬 안정적이고, 동시에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더 떨어진다. 그 밖에도 더 나은 월급, 직업적 기회 등, 노동자 계급의 노동 계약 형태인 노동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추가적인 혜택을 누

3) 이 용어는 카를 레너(Karl Renner)가 만들었고, 다렌도르프의 연구에 사용되었으며(Dahrendorf 1950), 골드소프의 연구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

릴 것이다.

서비스 계급을 구성하는 것은 주로 전문직, 경영직, 고위 기술직 및 관리직이다. 노동자 계급에는 기본적으로 미숙련 육체노동자와 농민이 속한다. 그렇지만 골드소프의 분류에 따르면 일부 범주는 여러 차원의 기준이 다소 혼재되어 있는 중간에 위치하는데, 이를테면 정규직 비육체노동자, 숙련 육체노동자, 고위 기술직 및 관리직이 여기에 속한다(Goldthorpe 2000).

골드소프 외에도 중간계급에 대한 논의로 명성이 높은 학자는 미국의 에릭 올린 라이트다. 마르크스 이론을 현대 사회 분석에 적합하도록 재조명한 그의 연구 덕분에 마르크스의 이론적 유산으로부터 다양한 중간계급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라이트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생산 수단, 기술, 조직이라는 복수 자산을 연계한 척도를 사용하여 분류 체계를 정립한다. 세 가지 자산은 각각 계급 간 경계를 정하기 위한 축으로 작용한다. 그런 방식에 따르면 동일한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축에서는 각각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중간계급들은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자산과 관련해 상호 모순적인 사회경제적 위치를 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생산 수단의 소유자가 아니면서도(소고용자를 제외하고) 기술 자산을 소유하거나 조직 자산과 관련한 특권적 위치에 있다(둘 중 하나를 갖거나 둘 모두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라이트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소고용자, 관리직 및 감독직, 숙련 육체노동자를 중간계급의 성원으로 이해한다(Wright 1993).

골드소프가 서비스 계급에 타 계급과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만을 부여하는 데 반해, 라이트는 하나가 아닌, 복수의 중간계급이 존재한다고 본다. 라이트의 구분은 여러 형태의 자산에 기초하고 있고, 다양한 그룹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의 성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골드소프의 분류는 상이한 그룹이

처한 노동 상황과 노동 계약의 형태에 기반하고 있다.

계급(들)을 둘러싼 현대의 논의가 위에서 언급한 연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⁴⁾ 이미 말한 것처럼 계급 논의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여 폭넓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많은 연구자가 연구의 편협성을 피하기 위해 소득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중간계급(들)을 정의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골드소프는 중간계급(들)을 노동 계약의 형태를 통해 정의하는 반면, 라이트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과 조직 내의 지위를 고려한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개인의 직업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매개로 각자 '계급에 대한 개요'를 세우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이렇게 계급화에 관한 사회학 문헌에서 우리는 개인의 직업에 부여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개인이 위치한 계급 상황을 한층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계급 상황이란, 베버에 따르면 사람들이 공통적인 생활 기회의 인과적 요소를 지닌 것으로, 이러한 요소는 재화의 소유나 소득 기회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배타적으로 대표되거나 상품 시장이나 노동 시장의 조건으로 대표되기도 한다(Weber 1979).⁵⁾

그런 의미에서 중간계급(들)은, 예를 들어 골드소프가 말하는 서비스 계급이나 밀스가 말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형성하는 시장과 노동의 상황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바꿔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대고용주와 육체노동자 사이에 위치하면서 유사한 계급 상황을 공유하는 개인·직업의 총합을 일컫는다.

4) 계급과 관련하여 골드너(Gouldner 1979), 다렌도르프(Dahrendorf 1950), 새비지(Savage et al. 1996)의 연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5) 계급(class)의 정의를 둘러싼 논란은 매우 방대하다(Scalon 1999; Lareau and Dalton 2008). 이 글에서는 베버의 입장에 더 가까운 관점을 취한다.

위와 같은 접근법은 단지 사회학 전통을 따르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특징을 고려함으로써 개인의 계급 상황을 이해하는 데 생활 기회를 더욱 합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요컨대 이제 막 취직한 기계공과 이미 자기 분야의 노동 시장에서 견고히 자리 잡은 전기 기술자가 가진 지평, 즉 기회 접근성, 실제 누릴 수 있는 권리, 전략적 이해 등은 두 사람이 같은 소득 수준일지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Quadros 2003). 결국 이 접근법은 계급 분석에서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해지고(Sobrinho 2011), 지속적인 불평등과 불평등 재생산의 제도적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 분석을 뒷받침해준다(Tilly 1999). 노벨상을 수상한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분석의 불완전성을 증명하고 있다(Sen 2001). 이렇듯 계급 또는 계급 연구(여기서는 중간계급 연구)에서 소득 분석은 한 계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4. 브라질의 중간계급

브라질에서도 중간계급(들)을 직업군 분포를 통해 정의하는 일부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콰드루스의 연구는(Quadros 1985; 1991; 2003) 밀스의 이론에 기초하여 브라질의 중간계급(들)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다. 따라서 개인의 직업 정보를 통해 중간계급(들)을 정의하고 구분하며, 이 분류에 따라 비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중간계급에 속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소브리뉴(Sobrinho 2011)도 네리가 중간계급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포쉬만(Pochman et al. 2006) 또한 콰드루스의 연구에 영향을 받은 그의 분석에서 직업

군의 협산을 통한 중간계급(들)의 정의를 강조한다.⁶⁾

19세기 중반까지도 브라질은 노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라는 과거 식민주의 유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다변화되지 않은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 브라질 도시에서는, 특히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에서는 자유직업인, 군인, 공무원, 상업 노동자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합쳐봤자 7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로 당시 경제 활동 연령에 있는 인구의 약 7%를 차지했다(Barbosa 2003). 그때부터 이러한 중간계급이 성장하기 시작해 20세기 초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계급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입 대체화 과정을 통해 중간계급의 경제적 기반이 현저하게 확대된 것은 1930년대의 일이다.

1930년과 1980년 사이 브라질은 강도 높은 도시화, 경제 확장, 산업화 과정을 겪었다. 그 기간에 브라질의 중간계급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 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역동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중간 직업의 등장, 국가에 의해 제공된 관료제와 공무원직의 증가가 이런 경향에 힘을 실어주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 중간계급의 성격 또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변화했는데, 이 계급 내 중소 지주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했다. 이 같은 20세기 중반의 브라질 중간계급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콰드루스가 잘 그려낸 바 있다(Quadros 1991).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경기 침체와 노동 시장 내 일련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중간계급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대기업 내의 전통적인 중간직의 일부는 점차 아웃소싱 등의 형태로 대체되었고, 나날이 극심해지는 외부 경쟁으

6) 브라질에서 이미 중산층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선행 연구가 있다(Fernandes 1975; Albuquerque 1977; Quadros 1985; Romanelli 1986; Oliveira 1988; O'Doutherty 1988; Bonelli 1989; Figueiredo 2004). 해당 연구에 대한 개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포쉬만(Pochman et al. 2006)을 참고.

로 회사는 직원 감축 또는 급여 삭감 등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도 또한 민영화와 관료제의 축소를 통한 국가 비중의 축소 노력이 있었다. 그 결과 중간계급에서 내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이에 상응하여 임금노동자의 비중은 감소했다), 제조업 부문이 축소되었으며, 중간계급 가운데 서비스 부문과 상업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Pochmann 2006).

다음 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새롭게 부상한 브라질의 신중간계급(들)을 분석하는데, 그 기저에는 중간계급의 성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을 둘러싼 논쟁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에는 브라질 국립가계표본조사(PNADs)와 브라질 지리통계국(IBGE)의 자료를 이용하였다.⁷⁾

5. 지난 10년간 등장한 브라질의 중간계급들

네리의 연구는(Neri 2008) 브라질 사회를 5개의 계급(A, B, C, D, E)으로 나누며,⁸⁾ 소득으로 계급의 경계를 정하고 있다. E계급의 월 소득은 768헤알(빈곤선을 바탕으로 계산된 제한선),⁹⁾ D계급은 768헤알에서 1,064헤알(소득 분배 중간값을 바탕으로 계산),¹⁰⁾ 소위 신중간계급이라고 부르는 C계급은 1,064헤알에서 4,591헤

7) 국립가계표본조사는 총인구조사를 실시하는 해(1980, 1991, 2000, 2010)를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된다. 브라질 인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하며, 여기서 확보한 다양한 변인에서 소득, 학력, 직업, 지리적 위치, 가족 및 가계 등에 대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가계표본조사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다.

8) 보통 A와 B계층은 한데 묶어 조사하고 연구하며, 'A와 B계층' 또는 'AB계층'이라는 용어로 다룬다.

9) 이에 대하여는 사회정책센터(Centro de Políticas Sociais)의 정의 및 계산 참고(Ferreira, Neri and Lanjouw 2003).

10) 계급 간 경계선은 각 가구의 1인당 월 수입을 토대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여기 제시된 금액은 2006년 월 가구총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밝혀둔다.

알(소득 분배 9분위)이다. 마지막으로 A와 B계급은 최소 소득이 4,591헤알인 엘리트 계급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각의 계급을 정의, 구분하는 경계는 오로지 소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중간값, 십분위를, 혹은 빈곤선과 같은 일부 척도를 참고한다.

추출된 표본에 대한 조사와 분석 결과, 2002년과 2009년 사이 신중간계급이라 부르는 C계급의 비율은 45.4%에서 54.2%로 증가했다. A와 B계급은 2002년 전체 표본의 13%에서 2009년에는 17%로 증가했다. 2002년 전체 표본의 15.5%를 차지하던 D계급의 비율은 2009년에는 12.2%로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E계급의 경우 2002년 26.1%에서 2009년 16.5%까지 대폭 줄어들어, 실제 이 계급은 근본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우리는 기존 저소득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중간 및 고소득층의 입지가 강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소득 분배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계급 비율의 현저한 감소와 C계급의 증가 또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자료를 토대로 브라질은 점점 중간계급의 나라로 되어간다거나 심지어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확산이 브라질 인구의 요구, 생활 방식, 세계관, 염원, 정치적 성향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간계급의 인구 측정에서, 특히 사회적·직업적 정보에 바탕을 둔 사회학 전통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브라질 사회 중간계급들의 최근 동향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우리는 에릭슨, 골드소프, 포르토카레로가 개발한 계급 분류 체계, 흔히 EGP¹¹⁾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EGP 분류는 직업코드를 활용하여

11) EGP라는 명칭은 이 분류법의 공동 창시자 3명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Erikson, Goldthorpe, and Portocarero 1979)

구축되었으며, “노동 시장과 생산 단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지위를 고려하려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Erikson, Goldthorpe and Portocarero 1979, 37). 이 분류법의 첫 번째 구분 기준에 따라 고용주와 자영업자, 피고용인은 각각 다른 범주로 분류된다. 두 번째 기준은 피고용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를 사는 인구 대다수가 이러한 형태의 경제 활동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준은 또한 노동 계약의 형태를 고려한 일자리 종류의 분류에도 적용된다.¹²⁾ 이 분류 축에는 대개 낮은 지위의 육체노동자 또는 비육체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문자 그대로의 노동 계약(labor contract)에서부터 전형적으로 전문직, 경영직, 관리직의 경우에 적용되는 서비스 관계까지 포함된다.¹³⁾

표 1 | EGP의 11개 범주 계급 분류법과 6개 범주로 축소한 EGP

| EGP 11 | | EGP 6 |
|----------------------|--------------------------|------------|
| I - 고위 전문직 및 경영직 | II - 하위 전문직 및 경영직 | 전문직 및 경영직 |
| IIIa - 정규직 비육체노동 고위직 | IIIb - 비육체노동 하위직 | 정규직 비육체노동자 |
| IVa - 종업원을 둔 영세 자영업자 | IVb - 종업원을 두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 영세 자영업자 |
| V - 육체노동 기술직 및 감독직 | VI - 숙련 노동자 | 숙련 육체노동자 |
| VII - 반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 | | 미숙련 육체노동자 |
| IVc - 농촌 노동자 | VIII - 농민 | 농촌 노동자 |

자료 | Bergman and Joye(2001). 필자 재구성

12) 골드소프는 대고용주 그룹의 세분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표본의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실증 연구에서 상이한 성격의 고용주를 각각의 독립적인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Goldthorpe 2000).

13) “노동 계약이 정하는 고용 관계는 비교적 단기에 이루어지는 특정 성격의 노력에 대한 금전적 교환을 수반한다. 피고용인은 ‘조각’ 혹은 ‘시간’ 단위로 책정된 임금에 대한 대가로 [...] 그에 상응하는 대략적

중간계급들 내에서 첫 번째 범주(전문직 및 경영직)는 신중간계급 내에서도 지배인, 감독,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보다 높은 지위의 전문직(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이 고위직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범주(정규직 비육체노동자)는 예를 들어 비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경찰 간부, 작가, 기자, 상점의 판매직과 같은 직종이 속한다. 이 두 그룹은 밀스가 말한 신중간계급(또는 화이트칼라)으로 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Mills 1951).

그러나 골드스포는 정규직 비육체노동자의 경우, 노동 조건은 서비스 관계(전문직과 경영직의 전형적 계약 형태)보다는 노동 계약의 형태에 더 가깝다고 본다(Goldthorpe 2000). 이 부문(정규직 비육체노동자)을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중간으로 분류하는 데는 폭넓은 이견이 존재한다(Devine 1997; Santos 2002). 어찌 됐든 이 부문에 대한 브라질의 기존 문헌과 실증 연구 중 일부는 브라질 사회에 육체노동과 비육체노동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 전자에 대한 밀스가 존재하며, 이러한 인식이 브라질 중간계급들의 정체성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Owensby 1999; Saes 1985). 그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정규직 비육체노동자를 중간계급으로 분류하는 쪽을 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세 자영업자 계급 — 또는 구중간계급(Mills 1951) — 은 지배인, 관리자, 사업주, 생산자, 판매자와 같은 직업군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전부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EGP 계급 분류 6개 범주에 따른 24세에서 60세까지의 남성 인구의 분포를 보여준다.

동량을 제공한다. [...] 반면 서비스 관계에서 고용 관계에는 장기간의, 일반적으로 보다 분산된 형태의 (노동-보상) 교환이 포함된다. [...] 피고용인은 자신의 고용 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상'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를 고용 기관에 제공하며, 여기서 '보상'은 급여나 기타 특전처럼 수행한 일에 대한 즉각적 보상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급여 인상, [...] 연금 혜택, [...] 유리한 경력 기회 보장 등과 같이 중요한 미래의 유망한 요소들로 구성되기도 한다'(Erikson and Goldthorpe 1993, 41).

| 표 2 | 2002~2009년 브라질 사회적·직업별 분류에 따른 인구 분포 절대치와 백분위(24세~60세 남성 인구 대상)

| EGP(6개 범주) | 연도 | | | |
|------------|------------|-------|------------|-------|
| | 2002 | | 2009 | |
| | 인구수 | % | 인구수 | % |
| 전문직 및 경영직 | 2,835,632 | 8.7 | 3,461,407 | 9.0 |
| 정규직 비육체노동자 | 4,269,793 | 13.1 | 5,863,331 | 15.2 |
| 영세 자영업자 | 2,986,857 | 9.1 | 3,024,758 | 7.8 |
| 숙련 노동자 | 7,552,212 | 23.1 | 9,296,971 | 24.1 |
| 미숙련 노동자 | 8,621,318 | 26.4 | 10,410,875 | 26.9 |
| 농촌 노동자 | 6,402,854 | 19.6 | 6,594,503 | 17.1 |
| 합계 | 32,668,666 | 100.0 | 38,651,845 | 100.0 |

자료 | PNADs, 2002, 2009/ IBGE(필자가 표로 재구성)

위 표에서 모든 계급의 절대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의 노동(활동) 인구의 증가를 반영한다. 그러나 2002년에서 2009년 사이 전체 구조에서 계급의 상대적 비율은 이렇다 할 본질적 변화를 겪지 않은 듯하다. 첫 세 개 범주(중간계급들)는 2002년 전체 연구 표본의 30.9%를 차지했고, 7년이 지난 2009년 이 비율은 32%가 된다. 2002년 전문직과 경영직은 정규직 비육체노동자와 함께 전체 노동 인구의 21.8%를 차지했으며 2009년에는 그 비율이 24.2%로 증가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2002년 노동 활동 인구의 9.1%에 해당했다가 2009년에는 7.8%로 감소했다. 이처럼 적은 비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회적·직업별 분류에 의해 측정했을 때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의 사회 구조에서 중간계급(들)의 비중은 변화했다기보다는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가시적인 외부적 변화는 크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별도의 세부 연구를 통해 이 계급의 내부에서 발생한 작은 변화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 | 2002년~2009년 브라질 중간계급 구성(24세~60세 남성 인구 대상)

| 중간계급(들) | 연도 | |
|------------|------|------|
| | 2002 | 2009 |
| | % | % |
| 전문직 및 경영직 | 28.1 | 28.0 |
| 정규직 비육체노동자 | 42.3 | 47.5 |
| 영세 자영업자 | 29.6 | 24.5 |
| 총계 | 100 | 100 |

자료 | PNADs, 2002, 2009/ IBGE(필자가 표로 재구성)

〈표 3〉은 포쉬만이 지적한 것처럼(Pochmann 2006), 자영업자로 구성된 중간계급 그룹의 비율이 중간계급 내 임금노동자의 비율에 근접해가던 경향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와 전복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듯 보인다. 2002년에는 중간계급의 약 30%가 영세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2009년에는 이 비율이 24.5%로 줄어든다. 다른 한편 정규직 비육체노동자의 비율은 2002년 42.3%에서 2009년 47.5%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주의 구성은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화이트칼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평판, 직장 내 자율성, 안정성 및 소득의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직업군 또한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직과 경영직은 28%대의 비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임금노동자로서 중간계급에 속하는 그룹의 비율이 증가하긴 했으나 이는 오로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로 분류되는 직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자료는 중간계급(들) 측정에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 그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와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을 기준으로 정의한 C계급(Neri 2008) 범주만 본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중간계급이 상당히 성장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직업의 종류와 노동 시장에서 지위를 기준으로 볼 때, 중간계급은 비록 구성상의 미세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특징은 오히려 기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에서는 중간계급의 특징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려 한다.

6. 최근 등장한 브라질 중간계급의 특징: 소득, 학력, 인종, 소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의 경제 상황은 호전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다수의 개인과 가구가 저소득 그룹에서 중간 소득 그룹으로 도약하였다. 아래의 <표 4>를 통해 우리는 2002년에서 2009년 사이 소득 증가 측면에서 어떤 계급이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 표 4 | 2002년~2009년 브라질 사회적·직업별 구성(EGP)에 의한 소득 평균* (24세~60세 남성 인구 대상)

| EGP(6개 범주) | 연도 | 소득 | | |
|------------|------|--------|-------|--------|
| | | 평균 | 변동(%) | 표준편차 |
| 전문직 및 경영직 | 2002 | 3522.9 | 2.7 | 3605.1 |
| | 2009 | 3616.4 | | 7129.4 |
| 정규직 비육체노동자 | 2002 | 1317.8 | 1.6 | 1507.1 |
| | 2009 | 1339.2 | | 1471.0 |
| 영세 자영업자 | 2002 | 2349.5 | 4.2 | 3474.4 |
| | 2009 | 2448.4 | | 3983.7 |
| 숙련 노동자 | 2002 | 959.3 | 13.3 | 883.8 |
| | 2009 | 1086.5 | | 939.6 |
| 미숙련 노동자 | 2002 | 817.7 | 9.8 | 821.2 |
| | 2009 | 897.6 | | 863.3 |
| 농촌 노동자 | 2002 | 508.5 | 15.0 | 1381.0 |
| | 2009 | 585.0 | | 1134.3 |

* 주 소득원 기준/고정가, 2009(INPC)¹⁴⁾
 자료 | PNADs, 2002, 2009/ IBGE(필자가 표로 재구성)

14) INPC는 브라질 소비자물가지수(Índice Nacional de Preços ao Consumidor)의 약어다 — 옮긴이

첫째, 계급 간 평균 소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그룹과 비교했을 때 영세 자영업자와 전문직 및 경영직이 특히 그렇다. 이와 동시에 밀스가 말하는(Mills 1951) 신중간계급의 중요성을 다룰 경우, 핵심 그룹으로 삼을 수 있는 정규직 비육체노동자 계급은 소득 측면에서 전문직 및 경영직이나 영세 고용주보다는 육체노동자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 기간에 거의 모든 계급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비율로 봤을 때 소득 증가의 가장 수혜 계급은 사회계급 구조의 하층부에 위치한 계급, 특히 육체노동자 그룹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인 2002년~2009년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를 대상으로 한 시우바의 연구에서도(Silva 2003) 계급 간 소득 격차는 감소했다.

한편 전문직 및 경영직의 평균 소득이 2002년과 2009년 사이에 2.7% 증가했고, 숙련 노동자의 소득은 13.3%, 미숙련 노동자의 경우는 9.8%, 농촌 지역 노동자의 소득은 15% 증가했다.

위에 제시된 자료에서 일반적인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중간계급(들)은 (정규직 비육체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육체노동자 계급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의 비율로 봤을 때, 소득 증가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계급은 브라질 사회 구조의 하층부에 가장 가까운 그룹, 즉 육체노동자였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에 관한 한 여전히 매우 큰 불평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간계급(들)과 육체노동자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간층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사회적 폐쇄성의 정도에 있다(Devine 1997). 이 문제와 관련하여, 브라질에서 이 계급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표의 상단으로부터 하단으로 갈수록 평균 교육 연수(각 학

표 5 | 2002년~2009년 브라질 사회적·직업별 구성(EGP)에 의한 평균 학력과 교육 연수 별 분포
(24세~60세 남성 인구 대상)

| EGP(6개 범주) | 연도 | 평균 | 0~4년 | 5~8년 | 9~12년 | 12년 이상 | 합계 |
|------------|------|------|------|------|-------|--------|-----|
| | | | % | % | % | % | |
| 전문직 및 경영직 | 2002 | 13.4 | 5.8 | 8.2 | 24.1 | 61.9 | 100 |
| | 2009 | 14.2 | 2.5 | 4.9 | 20.8 | 71.8 | |
| 정규직 비육체노동자 | 2002 | 10.7 | 11.8 | 23.3 | 44.4 | 20.6 | 100 |
| | 2009 | 11.7 | 7.0 | 15.3 | 49.1 | 28.5 | |
| 영세 자영업자 | 2002 | 9.3 | 25.6 | 24.7 | 31.5 | 18.2 | 100 |
| | 2009 | 10.0 | 19.6 | 22.8 | 37.3 | 20.4 | |
| 숙련 노동자 | 2002 | 7.5 | 36.6 | 34.9 | 24.1 | 4.7 | 100 |
| | 2009 | 8.8 | 25.0 | 30.0 | 37.4 | 7.7 | |
| 미숙련 노동자 | 2002 | 6.8 | 44.1 | 33.9 | 19.8 | 2.2 | 100 |
| | 2009 | 7.9 | 32.2 | 32.6 | 30.8 | 4.4 | |
| 농촌 노동자 | 2002 | 4.0 | 78.9 | 15.0 | 4.9 | 1.2 | 100 |
| | 2009 | 4.9 | 68.1 | 19.1 | 10.1 | 2.7 | |

자료 | PNADS, 2002, 2009/ IBGE(필자가 표로 재구성)

년 또는 단계를 온전히 수료한 경우를 기준)가 줄어들고 있으며, 2002년과 2009년 사이 모든 그룹에서 그룹 내 학력 증가의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교육 연수가 12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보면, 중간계급에 진입하는 데 장벽이 존재할 뿐 아니라 중간계급 내에도 또 다른 장벽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12년의 교육 연수는 고등교육기관을 최소 1년 다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에는 10세 이상의 브라질 인구 중 그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10%에도 못 미쳤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12년이라는 교육 연수가 중간계급 진입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명하다.

2009년 중간계급들에 속하지 않는 그룹 가운데 교육 연수가 12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숙련 육체노동자 그룹으로, 그 비율이 단 7.7%에 그쳤다. 영세 자영업자 그룹에서는 20.4%가, 정규직 비육체노동자의 경우 28.5%가 최소 12년의 교육을 받았으며, 전문직 및 경영직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71.8%나 되었다. 이 그룹은 학력 면에서 중간계급의 타 그룹과 비교했을 때 가장 폐쇄적인 특징을 보인다. 2009년 전문직 및 경영직 그룹의 90% 이상이 적어도 9년의

교육을 받았다. 이에 비해 비육체노동자는 77.6%, 영세 자영업자는 57.7%에 지나지 않았다. <표 5>에서 보듯, 이 두 그룹은 학력 분포가 비교적 고른 반면에 전문직 및 경영직 그룹은 최고 학력 비율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브라질 사회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피부색 또는 인종에 따른 계급화로, 이와 관련해서는 열띤 논쟁이 존재한다.¹⁵⁾ 우리는 인종별 분포가 중간계급들의 사회적 폐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래의 표는 이와 관련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표 6 | 2002년~2009년 브라질 사회적·직업별 구성(EGP)에 따른 피부색 또는 인종(24세~60세 남성 인구 대상)

| EGP(6개 범주) | 연도 | 피부색 혹은 인종 | | |
|------------|------|-----------|----------|---------|
| | | 백인 % | 흑인* % | 합계 % |
| 전문직 및 경영직 | 2002 | 76.3 | 23.7 | 100 |
| | 2009 | 71.7 | 28.3 | |
| 정규직 비육체노동자 | 2002 | 62.1 | 37.9 | 100 |
| | 2009 | 55.1 | 44.9 | |
| 영세 자영업자 | 2002 | 67.0 | 33.0 | 100 |
| | 2009 | 62.1 | 37.9 | |
| 숙련 노동자 | 2002 | 54.2 | 45.8 | 100 |
| | 2009 | 47.9 | 52.1 | |
| 미숙련 노동자 | 2002 | 50.0 | 50.0 | 100 |
| | 2009 | 43.2 | 56.8 | |
| 농촌 노동자 | 2002 | 43.2 | 56.8 | 100 |
| | 2009 | 38.5 | 61.5 | |

* 흑인(Negro)의 범주에는 흑인(preto)과 흑백 혼혈(pardo)이 포함됨.
PNADs, 2002, 2009/ IBGE(필자가 표로 재구성)

2009년 표본 그룹에서 흑인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총 51.1%였다(2002년에는 45.4%). 그러나 중간계급에 속하는 그룹 중 흑인의 비율이 50%에 이른 그룹은 단 하나도 없다. 전문직 및 경영직 그룹에서는 흑인 비율이 30%에도 못 미치

15) 히베이루는 이 논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ibeiro 2006)

며, 정규직 비육체노동자는 45% 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40% 이하이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계급에서 흑인 비율은 2009년에는 50%를 훌쩍 넘었고, 2002년에도 45.4%가 넘었다. 농업 부문과 미숙련 육체노동 부문에 흑인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중간계급(들) 내에서 전문직 및 경영직이 접하는 위치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이 그룹 구성원의 70% 이상이 백인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중간계급 전체로 보면 <표 6>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 역시 이와 유사한 — 두 번째 범주의 정규직 비육체노동자 그룹에서 흑인 비율이 살짝 더 높기는 하지만 — 인종별 구성을 보인다.

밀스(Mills 1951)와 부르디외(Bourdieu 2008)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간계급(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다른 계급과 구별되는 소비 패턴으로, 이는 이 그룹을 육체노동자보다 우월한 지위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과도 관련 있다. 브라질에서도 오도허티(O'Dougherty 1998)와 오웬스비(Owensby 1994)의 연구는 소비가 중간계급 정체성의 형성과 확인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 인구의 소비 확대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있어왔다. <표 7>은 2002년과 2009년에 일련의 특정 소비재(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표 7>의 그룹별 비율을 살펴보면 분석에 포함된 소비재를 소유한 가구의 비율이 2002년과 2009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특히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의 소유가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직과 경영직은 다른 그룹과 비교해 모든 품목에서 예외 없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중간계급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정규직 비육체노동자 그룹은 자동차 소유에서만 다소 차별화된

표 7 | 2002년~2009년 사회적·직업별 구성(EGP)에 따른 특정 소비재 소유 가구 비율(24세~60세 가구주 대상)

| EGP(6개 범주) | 연도 | 소비재 | | | | |
|------------|------|------|---------|------|------|------|
| | | 휴대전화 | 개인용 컴퓨터 | 냉장고 | 세탁기 | 자동차* |
| 전문직 및 경영직 | 2002 | 77.0 | 58.0 | 98.5 | 71.4 | - |
| | 2009 | 97.4 | 84.0 | 99.6 | 79.4 | 67.6 |
| 정규직 비육체노동자 | 2002 | 53.4 | 23.8 | 96.7 | 49.0 | - |
| | 2009 | 94.2 | 57.2 | 98.5 | 59.7 | 39.3 |
| 영세 자영업자 | 2002 | 58.6 | 31.8 | 94.8 | 53.8 | - |
| | 2009 | 91.6 | 57.1 | 97.2 | 62.3 | 50.9 |
| 숙련 노동자 | 2002 | 36.8 | 11.8 | 93.3 | 34.5 | - |
| | 2009 | 88.3 | 39.3 | 97.0 | 49.2 | 32.5 |
| 미숙련 노동자 | 2002 | 30.8 | 6.3 | 89.3 | 27.2 | - |
| | 2009 | 85.7 | 29.2 | 94.9 | 38.6 | 25.1 |
| 농촌 노동자 | 2002 | 12.8 | 2.5 | 60.7 | 9.2 | - |
| | 2009 | 56.9 | 9.4 | 80.1 | 14.8 | 16.7 |
| 합계 | 2002 | 38.9 | 16.4 | 87.3 | 35.2 | - |
| | 2009 | 84.8 | 40.3 | 94.3 | 46.5 | 33.9 |

* 2009년 자료만 존재
자료 | PNADs, 2002, 2009/ IBGE(필자가 표로 재구성)

결과를 보인다(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50.9%, 정규직 비육체노동자의 경우 39.3%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중간계급에 속하는 가구가 육체노동자와 농업 부문 노동자 가구보다 자동차 소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002년 이 계급 간 격차는 2009년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냉장고 소유에서는 그룹 간 격차가 그다지 느껴지지 않으나, 다만 농업 부문에서만 여전히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소비재의 소유 여부만 가지고 소비 패턴을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다 완전한 사회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규모나 양에서 유사한 개인 또는 그룹 간 존재하는, 어쩌면 서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생활 수준, 경향, 취향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소비 행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 제시된 여러 자료에 근거하여 한층 일반적인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소득 측면에서든, 학력, 그룹에 해당하는 인구의 인종 분포, 몇몇 소

비재의 소유 측면에서는 중간계급들과 육체노동자 계급 간에는 거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중간계급들의 소득 수준은 그보다 아래의 계급들에 비해 뚜렷하게 높고, 한층 폐쇄적이며(교육 수준과 인종 분포), 더 많은 소비재를 소유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비율적으로 봤을 때, 소득 및 소비의 증가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계급은 브라질 사회 구조에서 최하층에 가장 가까운 그룹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중간계급 내에서도 중요한 경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높은 소득 수준, 높은 백인 비율과 높은 학력, 가정 내 특정 소비재 소유에서 전문직 및 경영직이 차지하는 위상이 단연 눈에 띈다. 한편 정규직 비육체노동자와 육체노동자(특히 숙련 육체노동자)의 격차가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다. 정규직 비육체노동자 그룹은 비율적으로 볼 때 소득 수준이 가장 적게 향상되고, 흑인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경우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에서도 이 그룹과 숙련 육체노동자 간 격차는 2009년 조사에서 단 6.8%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간계급 하층’(baixa classe média)과 숙련 육체노동자 그룹 사이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8. 결론: 브라질은 중간계급의 나라인가?

브라질이 중간계급 국가가 되고 있다는 가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논거는 중간 소득 그룹들, 특히 신중간계급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C계급의 성장이다(Neri 2008).¹⁶⁾

16) 앞의 <표 1> 참조.

그러나 사회적·직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C계급이 얼마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

표 8 | 2002년~2009년 브라질 소득 계급*에 따른 사회적·직업별 구성(EGP)(24세~60세 가구주 대상)

| 소득 계급 ** | 연도 | EGP(6개 범주) | | | | | | 합계 |
|----------|------|------------|---------|---------|--------|---------|--------|-----|
| | | 전문직 및 경영직 | 비육체 노동자 | 영세 자영업자 | 육체 노동자 | 미숙련 노동자 | 농촌 노동자 | |
| | | % | % | % | % | % | % | |
| E | 2002 | 1.0 | 5.3 | 3.8 | 16.4 | 25.4 | 48.0 | 100 |
| | 2009 | 0.7 | 4.4 | 3.1 | 14.5 | 25.5 | 51.9 | |
| D | 2002 | 2.2 | 10.6 | 5.3 | 27.6 | 32.8 | 21.5 | 100 |
| | 2009 | 1.4 | 11.8 | 4.4 | 24.0 | 34.8 | 24.3 | |
| C | 2002 | 6.9 | 16.4 | 9.6 | 28.2 | 29.6 | 9.3 | 100 |
| | 2009 | 5.5 | 17.7 | 6.9 | 28.8 | 30.4 | 10.6 | |
| AB | 2002 | 34.2 | 17.9 | 20.3 | 13.1 | 10.9 | 3.6 | 100 |
| | 2009 | 30.1 | 18.8 | 16.2 | 17.6 | 13.1 | 4.2 | |

* 주 소득원 기준 /고정가, 2009(INPC)

** E(00.00~140.00헤알), D(141.00~222.00헤알), C(223.00~964.00헤알), AB(965.00헤알 이상)

자료 | PNADs, 2002, 2009/ IBGE(필자가 표로 재구성)

2002년이나 2009년 모두 C계급에는 전문직과 관리직으로부터 미숙련 노동자와 농촌 노동자,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 숙련 노동자 및 정규직 비육체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채로운 직종의 종사자가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미숙련 노동자가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숙련 육체노동자와 정규직 비육체노동자가 각각 28%와 17%이며, 농촌 노동자(10%), 영세 자영업자(2009년 기준 6.9%), 전문직과 경영직 순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02년 조사에서 단지 C계급의 32.9%, 2009년 조사에서는 30.1%만이 전문직과 경영직, 정규직 비육체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로 이루어진 중간계급 또는 중간계급들에 해당했다. 이는 동일 소득 그룹 내에서 육체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2009년 기준 59.2%)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중간 소득 그룹의 눈에 띄는 성장을 근거로 브라질은 중간계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중간계급의 나라’가 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어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자료를 통하여 우리는 브라질에서, 특히 사회 구조 하부 계급의 노동 시장 확대와 소득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에서 2009년 사이 브라질 사회 구조에서(소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직업적 분류를 통해 이해한) 중간계급들의 비중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간계급에 속하는 전문직 및 경영직은 그 직업군의 평균소득 증가와 함께 높은 고학력자 비율, 이에 대비되는 저조한 흑인 비율로 인해 두드러져 보인다. 한편 정규직 비육체노동자의 경우 수입이나 인종 구성 측면 모두에서 숙련 육체노동자의 특징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중간계급을 논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몇몇 특징들, 바꿔 말해서 순전히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계급 하층 그룹에 접근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을 연구하는 것이 한층 적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에서 이러한 유사성이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장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접근성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동화의 단계까지 이를 것인지, 그렇다면 과연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_ 양은미 옮김

원제와 출처

Celi Scalon e André Salata. 2012.

“Uma nova classe média no Brasil da última década?: o debate a partir da perspectiva sociológica.”
Revista Sociedade e Estado 27(2): 387-407.

참고문헌

- Albuquerque, G. 1977. *Classes médias e política no Brasil*. Rio de Janeiro: Paz e Terra.
- Barbos a, A. 2003. *A formação do mercado de trabalho no Brasil: da escravidão ao assalariamento*. Campinas: Instituto de Economia, UNICAMP.
- Barros, R., M. Carvalho, S. Franco, and R. Mendonça. 2010. *Determinantes da Queda na Desigualdade de Renda no Brasil*. IPEA. Texto para discussão No. 1460.
- Bergman, M. M. and D. Joye. 2001. "Comparing Social Stratification Schemas: CAMSIS, CSP-CH, Goldthorpe, ISCO-88, Treiman, and Wright." *Cambridge Studies in Social Research* 9: 1-31.
- Bonelli, M. da G. 1989. *A classe média, do "Milagre" à recessão: mobilidade social, expectativas e identidade coletiva*. São Paulo: IDESP.
- Bourdieu, P. 2008. *A Distinção: crítica social do julgamento*. São Paulo: Edusp.
- Burris, V. 1986. "The Discovery of the New Middle Class." *Theory and Society* 15: 317-349.
- Dahrendorf, R. 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Devine, F. 1997. *Social Class in America and Britai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Ehrenreich, B. and J. Ehrenreich. 1979. "The professional-managerial class." In P. Walker, ed. *Between Labour and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 Erikson, R. and J. H. Goldthorpe. 1993.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rikson, R., J. H. Goldthorpe, and L. Portocarero. 1979.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in Three Western European Societi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0: 415-441.
- Fernandes, F. 1975. *Capitalismo dependente e classes sociais na América Latina*. Rio de Janeiro: Zahar Editora.
- Figueiredo, A. 2004. "Fora do Jogo: a experiência dos negros na classe média brasileira." *Cadernos Pagu* 23: 199-228.
- Goldthorpe, J. H. 1995. "The Service Class Revisited." In M. Savage and T. Butler, eds. *Social Change and the Middle Classes*. London: UCL Press.
- Goldthorpe, J. H. 2000. "Social Class and the Differenti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In J. H. Goldthorpe, ed. *On Sociology: numbers, narratives, and the integration of research and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6-229.
- Goldthorpe, J. H., et al. 1969. *The Affluent Worker in the Class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uldner, A. W. 1982. *The Future of intellectuals and the Rise of the New Class*. New York: Continuum.
- Lareau, A., and C. Dalton, eds. 2008. *Social Class: how does it work?*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Maloutas, T. 2007. "Socio-Economic Classification Models and Contextual Difference: The 'European Sócio-economic Classes' (ESeC) from a South European Angle." *South European Society & Politics* 12(4): 443-460.
- Marques, E., M. C. Scalon, and M. A. Oliveira. 2009. "Estrutura Social e Classe em Duas Metrópoles Brasileiras." In M. C. Scalon, org. *Ensaços de Estratificação*. Belo Horizonte: Argumentum.
- Mills, C. W. 1951. *White Coll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eri, M. 2008. *A Nova Classe Média*. Rio de Janeiro: CPS.
- O'Dougherty, M. 1997. *Middle Classes, Ltd.: Consumption and class identity during Brazil's inflation crisis*. New York: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Oliveira, F. L. 1988. "Medusa ou as classes médias e a consolidação democrática." Em F. W. Reis e G. O'Donnell, orgs. *A democracia no Brasil: dilema e perspectivas*. São Paulo: Vértice.
- Oliveira, F. L. 2010. "Movilidad Social y Económica en Brasil: una nueva clase media?" En Rolando Franco, Martín Hopenhayn, y Arturo León, coord. 2010. *Las Clases Medias en América Latina: retrospectiva y nuevas tendencias*. México: Siglo XXI, CEPAL.
- Owensby, B. 1999. *Intimate Ironies: modernity and the making of the new middle class lives in Brazil*.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ochmann, M., Ricardo Amorim, e Ronnie Silva. 2006. *Classe Média: desenvolvimento e crise*. São Paulo: Cortez Editora.
- Quadros, W. 1985. *A nova classe média brasileira*. Campinas: IE/UNICAMP.
- Quadros, W. 1991. O "milagre brasileiro" e a expansão da nova classe média. Campinas: IE/UNICAMP.
- Quadros, W. 2003. "A evolução recente das classes sociais no Brasil." Em W. Henrique e M. Proni, org. *Trabalho, Mercado e Sociedade*. São Paulo: UNESP.
- Ribeiro, C. A. C. 2006. "Classe, raça e Mobilidade Social no Brasil." *DADOS – Revista de Ciências Sociais* 49(4): 833-873.
- Roemer, J. 1982. *A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manelli, G. 1996. "Famílias de camadas médias. A trajetória da modernidade." Tese de Doutorado, Universidade de São Paulo.
- Saes, D. 1984. *Classe Média e Sistema Político no Brasil*. São Paulo: T.A. Queiroz.
- Santos, J. A. F. 2002. *Estrutura de Posições de Classe no Brasil: mapeamento, mudanças e efeitos na renda*. Rio de Janeiro: IUPERJ.

- Savage, M., J. Barlow, P. Dkckens, and T. Fielding. 1995. *Property, bureaucracy and culture: middle-class formation in contemporary Britain*. Reprinted. London: Routledge.
- Sen, A. 2001. *Desigualdade Reexaminada*. São Paulo, Record.
- Silva, N. do V. 2003. “Os Rendimentos Pessoais.” Em Carlos Alfredo Hasenbalg e Nelson do Valle Silva, orgs. *Origens e Destinos: desigualdades sociais ao longo da vida*. Rio de Janeiro: Top books.
- Sobrinho, G. G. de F. X. 2011. “Classe C e sua alardeada ascensão: nova? Classe? Média? Índice Econômico.” *FEE* 38(4): 57-80.
- Souza, A. e B. Lamounier. 2001. *A Classe Média Brasileira: ambições, valores e projetos de sociedade*. Rio de Janeiro: Elsevier.
- Souza, J. 2010. Os batalhadores brasileiros. *Nova classe média ou nova classe trabalhadora? Belo Horizonte: UFMG*.
- Torres, H. 2004. “Quem é classe média no Brasil.” *Gazeta Mercantil – Opinião*, 23 de fevereiro.
- Wright, E. O. 1978. *Class, Crisis and the State*. London: New Left Books.
- Wright, E. O. 1986. “What is Middle About the Middle Class?” In John Roemer, org. *Analytical Marx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right, E. O. 1989. *The Debate on Classes*. London: Verso.